

# 6월의 사양관리포인트

김 성 호  
(진흥사료 영업부장)

## 1. 기 상

구 분	일 조 시 간			평 균 기 온	강 우 일 수
	6월 1일	6월 21일(하지)	6월 30일		
서울	14시간 35분	14시간 46분	14시간 43분	20.8°C	11일
대전	14 " 30"	14 " 37"	14 " 35"	20.6"	11일
대구	14 " 26"	14 " 36"	14 " 34"	21.6"	11일
광주	14 " 21"	14 " 32"	14 " 30"	21.4"	12일
부산	14 " 22"	14 " 31"	14 " 29"	19.8"	11일
제주	14 " 14"	14 " 23"	14 " 21"	20.4"	11일

상기 도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6월중 각 지방의 일조시간은 년중 가장 길며 상순에는 하루에 약 1분간씩 길어지다가 하지인 6월 21일을 기점으로 하순부터 짧아지기 시작한다. 평균기온은 20°C를 상회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닭의 최적온도인 15°C 내외를 유지하나, 낮의 최고온도는 30°C 전후로 상승하여 닭이 더위에 지치기 시작하며,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들게 되고 상대적으로 사내 습도가 높아져서 닭이 신경질적으로 되어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산란율이 저하되며 연변을 누게되므로 연란과 파란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달이다. 또 계절적으로 내외부기생충이 발생하여 여름철 질병의 발생이 급증하고 이로인한 피해를 입기 쉬우므로 환경을 청결히 하고 합리적인 위생관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 2. 육계의 관리 포인트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자”—축산인이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이 말이 가장 어렵게 아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느껴짐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양계장의 조상적인 종계장과 부화장의 위생관리가 중요함은 재언할 필요조차 없으나 과연 시설과 관리면에서 위생적으로 실행한다고 공인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될까? 10여년의 짧은 우리 축산 역사로서 외형적인 발전상은 기적적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개란성 전염병이 년중 창궐하고 있는 우리의 실정바인 질적인 생산성은 아직 초보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행하고 있는 종계장과 부화장에 대한 위생관리법의 강력한 시행이 절실히 요망된다. 한편 단미사료의 성상과 저장, 사료공장의 배합공장 및 양계장의 배합사료 보관에 이르기까지 사료위생 제로지대라 할 수 있는 우리의 현실인바 국가적인면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사료위생적인면에서 보면 합리적으로 배합처리되는 사료공장이 국내에는 한군데도 없고 값싼 사료를 원

하는 사육업자의 기호와 각 사료공장간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낮은 사료가격으로 인하여 원료의 조성분이나 겨우 검사 계산하여 배합설계를 하는 곳이 대부분이고, 양심적이고 책임감이 투철한 기사리아 미량성분 중에서 한 두가지 고려할 뿐 영양학적인 면에서도 이상적인 배합설계를 할 수 없는 국내 실정인바 사료위생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한 두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제도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리라고 믿는다.

그리고 제약회사—특히 백신제조회사는 저렴한 가격으로 인하여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실정인 줄 알고 있으나 백신투여후 호흡기 질병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생산성이 훨씬 뒤떨어지는 예가 허다하게 많아서 백신 노이로제에 걸린 피해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격을 몇배 더 인상하더라도 계획적인 생산으로 역가높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해 주기 바란다. 이들 모든 문제가 사양관리면과는 상관없는 것 같으나 병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병아리, 위생적으로 잘 처리된 우수한 사료, 역가 높은 약품의 3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질적생산 향상을 가져오게 되며 위생관리를 하게되어 양계장의 노력이 실효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 (1) 계란성 전염병으로 육계에 발병하기 쉬운 질병

- ① 추백리
- ② CRD
- ③ 살모넬라증
- ④ 뇌척수염
- ⑤ 전염성 관절막염
- ⑥ 대장균증
- ⑦ 곰팡이성 폐염
- ⑧ 뉴켓슬병

#### (2) 사료오염으로 육계에 발병하기 쉬운 질병

- ① 살모넬라증
- ② 곰팡이성 질병
- ③ 영양장애

#### (3) 생독백신 접종후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호흡기성 질병

#### (4) 양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질병

- ① CRD
- ② 살모넬라증
- ③ 콕시듐병
- ④ 뉴켓슬병
- ⑤ 대장균증
- ⑥ 곰팡이성 질병
- ⑦ 계두
- ⑧ 포도상구균증
- ⑨ 류코싸이토증

(참고) 현재 국내에서는 상거 질병들이 대부분 년중 발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연속육추를 하는 육계업에서는 방심하지 말고 예방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 3. 산란계의 관리 포인트

6월은 난가가 좋지 않은 달이므로 관리에 가장 소홀해지기 쉬운 달이다. 그러나 이런 시기일수록 최선의 노력으로 경영을 합리화해야겠다. 이달에는 적은 이상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장마가 계속되어 사료섭취량이 감소되고 산란피로가 쉽게 오게되며 연변으로 인하여 계사가 불결해지기 쉽고 연란과 파란의 발생이 현저하게 높아지며 기생충의 발생으로 여름철 질병의 발생율이 높아지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 의외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해야 겠다.

#### (1) 사 료

습도가 높아지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식욕이 감퇴되어 사료의 섭취량이 감소하게 되며 이로 인해서 체력이 약화되고 5월까지 높은 산란율 지속하던 닭에게 산란율이 저하되는 산란피로증이 오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 ① 고단백 고에너지 사료를 급여하고
- ② 비타민제와 무기질을 보강하여 스트래스를 해소시켜 주고

③ 제조후 10일이상 경과되지 않은 사료를 사용토록하고 사료 보관은 통풍이 잘 되도록 해서 변질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며

④ 사내 온도를 낮추어 주어야 한다.

### (2) 연변대책

고온시에는 닭이 체온을 조절하기 위하여 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연변을 누게된다. 이는 평사보다 케이지 사육에서 더 심하며 환기가 잘 되지 않을수록, 또 염분이 적정량 함유되지 않은 사료일수록 더 심하게 나타난다.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① 선풍기 등을 이용하여 통풍을 시켜주고

② 한낮에 사내에 소독수를 살포하고 계사 주변과 지붕에 물을 뿌려주고

③ 환우계와 과산계의 과감한 도태로 평당 사육수수를 줄여야 되며

④ 신선한 찬물로 급수를 하고

⑤ 적정량의 염분이 첨가된 배합사료를 급여해야 된다. (적정량 : 0.5%)

이외의 방법으로는

⑥ 제한급수를 하는 방법과

⑦ 빙초산을 음수에 0.3% 첨가하여 급수하는 방법.

⑧ 한낮의 가장 더울 때 식염을 첨가하여 급수하는 방법 등이 있으니 각 양계장 사정에 따라 대책을 세워야겠다.

### (3) 점 등

① 4월하순에서 7월하순사이에 부화된 병아리는 자연일조에서 육성하고 8월상순에서 3월하순에 부화된 병아리는 점감 점등으로 조산을 방지해야 된다.

② 점등을 하고 있는 성계는 절대로 점등시간을 단축하지 말고 아직 점등을 하지 않고 있는 성계는 하지가 이후부터 점등을 시작하되 최소한 하저시의 일조시간인 14시간 46분이상 점등해야 한다.

③ 저녁점등보다는 새벽점등이 좋다. 저녁에는 특히 전력소모가 많은 지역에서는 전력이 약해서 점등효과가 적으며 또 여름철에는 저녁온도가 높고 모기 등의 외부기생충과 곤충이 불빛을 따라 모여들어 닭을 괴롭히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 그러나 새벽에는 적온이 되어 식욕도 왕성하고 전등의 밝기도 훨씬 더 밝아지고 곤충의 해도 적으므로 점등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일몰시간의 변화에 신경을 쓰야되므로 저녁점등과 새벽점등을 병행하되 새벽점등에 시간을 더 많이 주는 점등계획을 세워 실행함이 바람직하다.

### (4) 관 리

① 물통을 청결히 할 것

닭이 먹던 사료를 물에 흘리게 되며 여름철에는 이것이 바로 부패하게 되는데 이는 발병의 원인이 되니 항상 물통을 깨끗하게 닭아주어야 한다.

② 외부기생충을 구제할 것.

(참고) 외부기생충 예방

1. 계사주위에 물이 고이지 않게 할 것

2. 내부시설은 가능한 철재로 할 것

3. 출입문과 환기장에 방충망 설치

4. 계분처리장의 위생관리

5. 기생충 구제약을 살포할 것

③ 내부기생충을 구제할 것

1. 회충—피페라진제제

2. 맹장충—페노다디아진

### ☆ 독자원고 모집 ☆

월간양계 편집부에서는 애독자여러분의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 양계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 새로운 사육방법 혹은 기술
- 최신 해외논문
- 양계경영 체질수기
- 기타

원고는 매달 15일까지 본사 편집부로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고료를 지급합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바랍니다.

1) 반드시 한글로 기재해주시시오.

2) 고유명사등은 꼭바로 표시해주시시오.

보내실곳 : 우편번호 100

서울시 중구 양동 44-28

대한양계협회 편집부 전화 22-2571-2

애독자 여러분의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